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네방네 아지트 지원사업



동네방네 아지트 지원사업

2024년 5월,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2024년 5월 20일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동네방네 아지트’ 사업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동네방네 아지트 워크 - 시가 있는 작은 콘서트

이 콘서트 8월 8일 '동네방네 아지트 워크 - 시가 있는 작은 콘서트'가 개최된다. 이 콘서트
 는 2023년 8월 8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 콘서트
 는 동네방네 아지트 워크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가들이 모여 시를 낭독하고 연주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콘서트에는 시인, 음악가, 그리고 시각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선보인다. 이 콘서트는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이 콘서트는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이 콘서트는 '동네방네
 아지트 워크'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가들이 모여 시를 낭독하고 연주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콘서트는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동네방네 아지트 - 강화 버드카페

2024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버드 카페'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새를 소개하고, 새의 생태와 서식지, 새의 행동과 번식, 새의 보호와 복원 등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새의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 새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소개하고, 새의 보호와 복원에 대해 소개한다. 운영시간은 09:00~18:00이며 "예약 없이도 방문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화도자연환경센터 홈페이지(www.ganghwaeco.com)를 참조하거나 전화(031-320-3030)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처: 강화도자연환경센터(강화읍 가락리 101번지)



동네방네 아지트 산책단 - 오래된 아지트

9월 8일, 동네방네 아지트 산책단에서는 '오래된 가게'의 정진오 작가를 초청하여 '오래된 가게'와 '짧지만 긴 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진오 작가는 '오래된 가게'를 통해 '오래된 가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짧지만 긴 대화'를 통해 '오래된 가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진오 작가는 '오래된 가게'를 통해 '오래된 가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짧지만 긴 대화'를 통해 '오래된 가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진오 작가는 '오래된 가게'를 통해 '오래된 가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짧지만 긴 대화'를 통해 '오래된 가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진오 작가는 '오래된 가게'를 통해 '오래된 가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짧지만 긴 대화'를 통해 '오래된 가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동네방네 아지트 - 강화 국자와 주걱

이 공간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특히 강화 지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책을 비치하고, 지역 특산물인 국자와 주걱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특히 강화 지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책을 비치하고, 지역 특산물인 국자와 주걱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0 / 000000 3.0 0000 000
 00 / 000000 3.0 0000 000